

##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 「창세기 강해」

### 영계의 비밀과 창조에 담긴 놀라운 사실 증거



「창세기 강해」가 진행 중인 우리 교회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밤 11시,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 금요철야 예배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인간 구원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요한계시록 강해'가 3년 만에 마쳐지고, 6월 26일 '근본의 하나님'을 시작으로 이재록 목사 「창세기 2차 강해」 설교가 진행 중이다.

2000년 12월 1일부터 2006년 9월 29일까지 70개월 동안 진행된 총 230편의 '창세기 1차 강해'는 전 세계 주의 종과 성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1차 강해를 시작한 지 9년이 지났고, 다시 듣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과 전 세계 GCN 시청자들에게 창세기의 깊은 내용을 알리고자 1차 강해 내용을 정리하고 보충해 2차 강해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진화론 등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사상과 이론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세기 강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태초 이전의 세계부터 밝히게 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포한다. '지구와 우주의 기원', '인간 창조의 섭리',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피라미드', '블랙홀' 등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전개될 이재록 목사 「창세기 강해」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은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뜨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청량감을 만끽하게 해 줄 것이다.

### 화제의 신간

## 이재록 목사 『영혼육(상)』 연일 베스트셀러에 올라

이재록 목사의 나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이야기 『영혼육(상)』이 교보문고 및 북스리브로 등에서 연일 종교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이 책은 주의 종과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보문고 종교 베스트셀러에 오른 『영혼육(상)』

벌써 시중 및 전국 대형 서점과 기독교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되어 재판이 발매되었다. 『영혼육(상)』은 사람의 구성요소인 영과 혼과 육

에 대한 영적 의미를 명쾌히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근본에 대해 알기 원하는 독자층의 발길이 앞으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더운 여름, 영혼의 시원함을 선사하는 『영혼육(상)』 책자와 함께 휴가를 떠나 보면 어떨까?

### 다국어 '만민중앙소식' 인기리에 발간

글로벌 선교시대에 발맞추어 '만민중앙소식'이 인기리에 각국어로 발간되어 전 세계로 보급망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영어, 일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타밀어, 힌디어, 파갈로그어, 인니어, 네팔어 등 다국어 번역판과 인터넷 만민중앙소식으로 전 세계에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명실공히 세계적 선교신문으로 자리매김한 '만민중앙소식'은 국내외 안팎 소식과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다.

### | 칼럼 |

## 인생의 지렛대

지렛대는 무거운 물건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정, 일터, 사업터, 건강 등의 무거운 인생 문제를 번쩍 들어 올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렛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지렛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지렛대를 찾아 범사에 행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27)

글 이재록 목사 중앙일보 연재 '길'에서

## 성결 복음의 뜨거운 흐름 ‘일본 복음화 교역자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6일~8일, 일본 나가노현 아즈미노 시에 있는 아즈미노 그레이스 채플에서 '일본 기독교 복음화 모임'과 '신수 부흥 선교회' 공동개최로 「일본 복음화 교역자 세미나」가 열렸다.

강사 유승길 목사(이다만민교회 담임)는 3회에 걸쳐서 '영·혼·육' 교육을 진행했는데, 참석자 모두 그 말씀의 깊이로 매료되었다. 밤에는 호타카 산에 올라가 합심 기도를 드리며 회개와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일본 교회를 깨울 성결 복음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 MMTC 유럽 비전 트립

## 가자, 유럽을 깨우러!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 헤렌탈스에서 '제3회 십자가의 도 유럽 캠프'가 진행된다. MMTC(만민세계선교훈련원) '십자가의 도 유럽 캠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을 전하며 유럽의 청소년들을 변화시켜 왔다. 훈련생들은 캠프 일정에 앞서 영국, 프랑스를 방문해 유럽 선교의 비전을 다졌다.

#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6-8)

진정 응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변함없어야 하는데 기대와 달리 응답이 없으면 두 마음을 가지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 1.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

야고보서 1장 6-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8절에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받을 줄로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응답이 더디다면 혹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의 차이

믿음에는 ‘참 믿음’과 ‘지식적인 믿음’ 곧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서 믿으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존합니다. 의심하는 사람, 곧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참 믿음으로 구할 때와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할 때는 그 과정과 결과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첫째로, 참 믿음으로 구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반면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시험 환난이 오면 마음이 쉽게 요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갑자기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며 음성사서함 기도나 손수건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이 더 펄펄 끓는다면 상황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여전히 마음이 요동하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했다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의심하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둘째로, 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변개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변함없이 구합니다.** 반면에, 두 마음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응답이 더디거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 변개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도제목을 놓고 작정을 했다가도 중간에 임의로 작정을 깨뜨립니다. 기도제목을 바꾸거나 목표치를 낮추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구하는 즉시 응답받고 자신의 바람대로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 공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라 응답받는 속도나 응답주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개치 않아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까지 고집스럽게 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개함 없이 구하되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일 5:14).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구한다 해도 정욕을 위해 구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기에,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렘 33:3).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암담한 현실에 처해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소경 바디매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었지요. 이처럼 신실한 믿음은 부르짖는 기도로 표현됩니다.

참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도 힘써 부르짖지 않습니다.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더 부르짖어야 하는데 오히려 힘이 빠져서 부르짖지 못하지요. 이는 응답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3.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참 믿음으로 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참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의심이 들고 변개할 마음이 없었는데 중간에 변개하며 때로는 부르짖지 못하기도 합니다.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믿음을 이루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해결해야 할 문제나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세상의 유혹이 와도 단호히 물리치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진리를 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행해 나가더라도 원하는 만큼 신속히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십니다.

육의 부모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 올 때 마음이 흐뭇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진리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는데,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지 않고,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아가면 마음에 담대함과 응답의 확신이 임해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요일 3:21-2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마음껏 영광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이재록 목사 대표 저서 |

### 십자가의 도



**15개국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영적 잠에서 깨우고 참 생명을 주는 감동의 메시지!

### 천국 상·하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  
상: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곳  
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행복과 영화를 누릴 황홀한 천국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메시지

### 지옥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지옥의 참상**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

###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별 지침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방인 복음 전파로 수없이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차이는?

###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 강해**  
탄생부터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는 예수님의 일대기

### 고린도전서 강해 상·하



**지혜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  
분쟁이나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이나 영적 은사 등 하나님 뜻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 나의 삶 나의 신앙 1·2



**멈추지 않는 감동과 진실의 향기**  
지금도 성경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 개정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제설교모음 **기도 편**  
기도는 전능자 하나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 열쇠, 시공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사건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

# 결혼 13년 만에 얻은 하나님 선물, 내 아들 성결이

춘천만민교회(담임 김동헌 목사) **임수희 집사**는 요즘 하루 하루가 꽃길을 걷는 기분이다. 결혼 13년 만에 아들 성결이(1세)를 낳은 후 하나님 사랑을 더욱 느끼기 때문이다.

“처음엔 공부와 버거운 직장생활로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정작 아이를 갖고자 할 때에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불임클리닉으로 이름난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몸에 이상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만 초조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졌다. ‘40세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입양을 하자’고 남편과 상의도 했다.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길 잃고 버려진 불쌍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2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2007년 4월, 시어머니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녀는 수많은 잉태의 축복 간증을 듣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몇 번이나 기도를 받았다. 하지만 임신은 되지 않았다.

“믿음이라기보다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막무가내로 기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서는 부부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참 믿음을 소유해 나아오길 기다리셨던 것일까. 그 무렵, 남편 이관규 집사(강원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가 교회 조경 봉사를 했다. 이



잉태의 축복 기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이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다.  
함께 기도받은 여동생도  
4년 만에 잉태해 기쁨을 더했다.

를 계기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온 가족이 기도를 받았다.

2달 후, 몸에 이상을 느껴 산부인과를 찾으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이 아닌가.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고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때 함께 기도받은 여동생 임현지 성도 역시 4년 만에 잉태해 기쁨이 더했다.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며 기쁨과 행복으로 봉사한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이의 이름을 ‘성결’이라고 짓고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성결’이 이름으로 감사와 건축 헌금 등 힘껏 드리기 시작했어요.”

강원도 도청에 근무하는 그녀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일의 힘에 부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각종 예배와 다니엘 철야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했다. 임신 6개월경, 조산의 위기가 왔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만삭의 몸일 때에도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각종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참석했다.

지난 4월 5일, 주일 아침 9시경 그녀는 순산했다. 아이를 낳은 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깨달았다는 그녀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고백한다.

##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고센 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 집 앞에서 멈춘 화재의 불길

“집 옆 공장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 보세요!”

경기도 시흥시 집 옆의 화재 소식을 접한 김화숙 집사(49세)는 그때 충남 아산에 있었다. 멀리 있던 그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오환준 전도사(아산만민교회 담임)에게 부탁해 예배를 드리며 충만한 기도회까지 가졌다. 마음이 평안했다. 과연 결과는 어찌됐을까?

소방차 7대가 출동하고 10분 만에 12개 업체가 입주



김화숙 집사

한 공장건물 한 동이 전소됐지만 그녀의 집은 온전히 보호받았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극렬한 불길의 그녀의 집에 옮겨 불기 직전, 난데없이 세찬 역풍이 불어와 불길이 집 쪽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곤히 잠든 사이...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뒤 엄마와 곤히 잠이 든 고혜인 자매(12세, 초등 5학년)는 위급한 상황이 전개된 꿈을 꾸다 잠에서 깼다. 그 때 ‘톡톡! 톡톡!’ 깔고 자던 전기장판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다.

엄마를 깨워 다급히 불을 끈 뒤, 이불을 들춰보니 이불 속까지 타 들어가 움푹 패어 있었다. 화상과 함께 큰 화재로 이어질 긴박한 순간이었다.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화재의 위험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엄마 정경숙 집사와 함께한 고혜인 자매

### 건축 공사현장에서 생긴 일

건축 공사 현장, 6m 높이 천장에 있는 자재를 철거하던 안광양 집사(39세)의 머리 위로 약 15-16Kg 되는 4m짜리 버팀목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머리를 돌림과 동시에 버팀목들은 그의 손과 엉덩이를 살짝 스치고 저만치 나가 떨어



안광양 집사

졌다. 경험상 중상 아니면 사망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동료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 졸음운전, 3중 추돌사고... 그러나



▼ 이종일 형제 ▲ 교통사고로 폐차된 차량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 근처, 졸음운전을 하던 이종일 형제(26세)는 달리는 1톤 트럭을 들이받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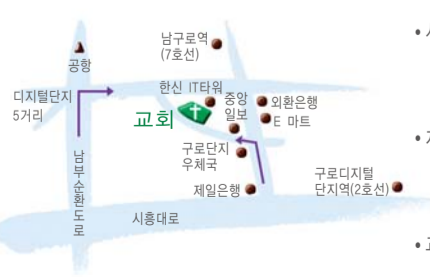
차가 뱅글뱅글 회전하는 사이 뒤차가 또 한 번 들이받는 바람에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아찔한 순간, 그러나 놀랍게도 완전 폐차된 그의 차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얼굴과 다리에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사고 조사 교통경찰관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고개를 가우뚱했다.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 예배	1부 · 오전 10:0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배우·마리아]	오후 8:00
	2부 · 오전 11:30		
	[빛과소금교회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 오전 11:40
새벽예배	새벽 5:00		저녁 · 오후 1:30

### 교회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팀 ☎ 02-818-7391~5)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 이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070-8240-56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 국민은행 362-21-0201-106
  - 우리은행 072-255732-02-201
  - 농 협 100072-52-061722
  - 우 체 국 012419-02-047269

# 손수건 기도를 통한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11-12)

## 파키스탄

### 손수건 기도의 위력을 실감했던 집회

타리크 지아 목사



지난 7월 1일, 저는 라호르 코트 라크파트에서 이터널 라이프 미니스트리 안와르 파잘 목사가 주관한 대형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1만 2천여 명이 모인 집회장은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우르두어로 더빙된 ‘권능’ DVD를 상영한 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손수건에 대해 담대히 설명한 후, 단 위에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지요.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기 감전으로 목에 화상을 입은 아미르(남, 17세)는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그 상처가 치료되었고, 마르얌(여, 23세)은 악한 영에게 놓임받았으며, 자베드(남, 34세)는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 걸을 수가 없었는데 잘 걷게 되었습니다. 또 유니스 마시(남, 60

세)는 심장 수술을 해야 했지만, 손수건 기도를 통해 수술하지 않고 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지요. 다섯 살이 되도록 걷지 못했던 존이 손수건 기도로 걷기 시작하는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손수건 기도를 통해 나타난 기적적인 일들을 보며 안와르 파잘 목사가 성도들의 기도 요청 용지가 담긴 바구니를 제게 가져와 손수건 기도를 요청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손수건 기도의 위력을 실감케 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 인도

### 각막 혼탁증이 단번에 치료된 소년 라홀

김상휘 목사

북인도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난 권능의 역사를 담은 ‘권능’ DVD를 전도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사역을 자발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파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지요.

북인도 하리아나 주 파리다바드에 사는 아후자 성도는 ‘권능’ DVD를 시청한 뒤 힌두교에서 개종해 만민중앙교회 성도로 인터넷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 가정을 심방했는데, 그녀에게

는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8살 난 아들 라홀이 태어날 때부터 각막 혼탁증 때문에 사물을 잘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지요.

이틀 후, 그녀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라홀은 시력이 좋지 않아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떠드는 라홀에게 맨 뒷자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앉은 라홀



라홀(오른쪽 두 번째)의 가족과 함께한 김상휘 목사(맨 왼쪽)

이 노트에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생님도 너무 놀라워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병원 검진 결과, 시력은 정상이었습니다.

## 벨기에

### 뇌종양, 불임 등 끊이지 않는 치료 역사

기 다비츠 목사

요즈음 저는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사역해 매우 행복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이곳 벨기에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 치료와 인생 문제를 해결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일례로, 약 1년 전부터 뇌종양으로 반신 불수와 언어장애를 겪던 한 성도는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말도 하고 몸을 움직일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또 한 성도는 몇 년 전 쌍둥이를 유산하는 과정에서 자궁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나팔관 한쪽이 막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난 5월 3일,

브뤼셀 만민교회 대에 배 중에 어떤 손이 자궁 속 나팔관에서 덩어리를 꺼내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뒤 병원 검진 결과, 막혔던 나팔관이 뚫려 정상이 되었고, 자궁도 튼튼해져 임신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권능의 손수건 기도는 그 진가가 드러나 유럽 복음화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 태국

### 손수건 기도로 생긴 태국의 ‘나사렛’ 마을



본국으로 돌아간 워라폰 목사는 손수건 기도를 통해 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깜짝 놀랄 소식은 20년 된 선천적 병어리가 말을 하고, 현지 무

당이 전도되어 그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되었다는 것이다.

워라폰 목사는 교회 근처 마을에 사는 그 무당을 위해 기도와 전도를 지속적으로 했다. 하지만 무당은 완강히 거절하며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았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능의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자주 그 집에 들러 기도해 주곤 했다. 그런데 3주 전, 갑자기 그가 찾아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워라폰 목사는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고, 가족 모두 예전 이름은 싫다며 무당의 이름은 베드로, 그의 아내는 에스더, 딸은 마리아, 아들은 바울로 개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목도한 마을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해 마을 이름을 나사렛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5/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53)783-3017, 010-71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농아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8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촌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55)322-7055, 010-3559-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1-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153 ☎061)452-7443, 010-7129-315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929-1 ☎063)223-9991, 018-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1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